춘천도시재생

uris.chuncheon.go.kr
uris.chuncheon.go.kr/webzine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읓치읓 3호

발행호 3호 **발행일** 2021년 4월 12일 **창간일** 2020년 10월 1일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순철 **편집위원** 이경은, 도윤정, 이범용, 김다인, 이채은, 김태홍, 신요한
편집/디자인 이경은, 도윤정 **인쇄** 강원도민일보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T. 033-245-5266)
협조 춘천시, 심심풀이로 가끔 열어보는 공간, 세콰노의 머거머거 **로고제공** (주)mver (T. 033-256-2045)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읓치읓 3호
2021. 4.

춘천시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2021 April **VOL. 3**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uris.chuncheon.go.kr/webzine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읓치읓 3호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3 시청별관 3층 T 033-245-5266 W uris.chuncheon.go.kr/webzine

잠든 밤 그대 내 이름을 불러
잊혀진 날을 기억하고
그 시간들을 만나러 가는 길
춘천의 강물이 흐른다
하루 종일 지친 마음으로
그대 이름 불러 본다

청춘이 잠시 머물던 곳
그 시간, 기억 여전히 남아서
내가 웃고 울었던 이 도시
수 많은 애길 들어줬구나

계절은 돌아 다시 이곳으로
그리움을 싣고 왔네
보고픈 많은 사연들이
춘천의 하늘을 적신다

- 김추자 '춘천의 하늘' 중에서



발행호 통권 3호
발행일 2021년 4월 12일
창간일 2020년 10월 1일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순철
편집위원 이경은, 도윤정, 이범용, 김다인, 이채은, 김태홍, 신요한

편집/디자인 이경은, 도윤정
인쇄 강원도민일보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T. 033-245-5266)

협조 춘천시, 심심풀이로 가끔 열어보는 공간, 세콰노의 머거머거
로고제공 (주)mver (T. 033-256-2045)

Contents

p.4. 「약사동 망대골목」 서로 기대어 살자 ***p.6.*** 「주민역량강화 교육 : 친절 및 상품전시」 코로나-19, 그리고 상권활성화 ***p.8.*** 「근화소양 주민쉼터 활용」 학교 앞 주민 카페와 초등학생을 위한 조그마한 책방 ***p.10.*** 「'다시 봄' 전시회」 커뮤니티 아트 '약사의 땅' ***p.11.*** 「쌈지공원」 지역이 재생되다, 땅에 솜결을 불어넣다 ***p.12.*** 「올챙이국수, Since1977」 올챙이 국수에 올챙이가 들었게, 안 들었게? ***p.14.*** 「춘천 향교」 도심 속, 마을 역사가 살아 숨쉬다 ***p.15.*** 「번개시장 상인역량강화 교육」 2021년도 번개시장의 도약 ***p.16.*** 「마을활동가」 2021년 선발된 마을활동가를 소개합니다 ***p.20.*** 「약사리 문화마을 마을공유공간」 마을공유부엌 & 어린이 작업실 ***p.21.***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조성사업」 춘천 지하도상가의 새로운 변화 ***p.22.*** 「자율주택정비사업」 헌집 줄게 새집 다오

2021 April **VOL. 3**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서로 기대어 살자

약사동 망대골목

글 도윤정 코디네이터
사진 심심풀이로 잠깐 열어보는 공간
(blog.naver.com/handkiss)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날에는 춘천에 갈 일이다
약사동 망대에 오르기 전 기대슈퍼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늙은 햇살에게 흘러간 길을 묻고 문득 해몽을 들을 일이다

- 김정수 「망대」 중에서



춘천의 하늘과 가까워지는 골목이 있다. 어깨 남짓 넓이, 사람 한 명 겨우 오를 수 있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약사동에 있다. 이곳은 길 밖으로 나온 슬레이트 처마, 칠이 벗겨진 사자 모양 손잡이 철문, 막다른 골목, 색이 바래 원래의 색과 용도를 짐작할 수 없는 천막, 개가 우는 소리, 불규칙한 계단 높이를 느끼며 걷는 골목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오 분 내지 골목길을 오르다 보면 춘천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망대에 도착한다. 죽림동 성당부터 봉의초등학교, 중앙시장과 강원도청까지 굽어볼 수 있다. 약사리 고개는 도로가 확장되기 전까지 손수레 휴게소가 있을 정도로 고개를 통해 많은 생필품과 물자가 이동했다. 망대 골목은 통금이 있던 시절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모여 이룬 동네이다. 약사리 고개를 넘으면 너무 늦기 때문에 망대골목에 집을 지었다고 한다.

하얀 망대는 더 이상 본연의 목적인 망의 역할을 하진 않지만 그 자리를 견고히 지키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세워져, 불이 자주 나던 판자촌의 화재 감시를 위해 세워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학곡리로 이전하기 전 춘천교도소의 감시용 탑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망대 꼭대기의 사이렌이 더는 울리지 않지만 골목길을 뛰어놀던 아이들은 노인이 되어서도 그 사이렌 소리를 분명히 기억한다.

망대 아래 다닥다닥 따개비 붙은 어느 집에서 근대조각의 선구자인 권진규가 어느 평범한 고등학생과 다르지 않게 하숙 생활을 했고, 화가 박수근은 생계를 위해 막노동을 하며 살았고, 소설가 한수산은 글을 쓰며 지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약사동 골목길에 억만 번이 넘는 발자국을 찍고 오르내렸다.

골목을 빠져나오면 이십 년도 더 된 나이 든 슈퍼 마켓이 맞이한다. "이웃끼리 서로 기대어 살자"라는 뜻으로 기대슈퍼라 지었다고 한다.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날에는 춘천에 갈 일이다 약사동 망대에 오르기 전 기대슈퍼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늙은 햇살에게 흘러간 길을 묻고 문득 해몽을 들을 일이다' 김정수 시인의 망대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약사동 망대 골목이 편히 기대고 싶은 푸근함을 주나 보다. 이웃에게 기대고 싶은 날에는 골목에 올라 망대에 잠시 기대도 좋다.





코로나-19, 그리고 상권활성화

주민역량강화 교육 : 친절 및 상품 전시

- **일정** 21. 3. 2. - 21. 3. 23. (매주 화·목/ 총6회/ 오전·오후 2팀 진행)
- **시간** 1회 2시간 (오전 9-11시, 오후 3-5시)
- **수강대상** 조운동 권역 상인 40명 (오전20명/오후20명)
- **교육장소**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회의실

글/사진 김태홍 코디네이터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조운동 권역(새명동, 요선동, 지하상가) 상인들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친절 및 상품전시 교육이 조운동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에서 진행됐다. 주민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상점가 내방 고객 응대와 매장 인테리어, 제품 진열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매주 화·목 오전 8시, 교육 진행을 위해 이른 시간 서울에서 출발한 강사가 센터에 도착한다. 한 시간 후, 지하상가 상인들이 아침 개업 준비를 서둘러 마치고 교육 참여를 위해 센터로 찾아온다. 약 두 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영업 개시를 위해 곧바로 가게로 향한다. 오후 3시, 점심 영업 후 급히 정리를 마친 새명동, 요선동 상점가 상인들이 센터로 온다. 두 시간의 교육 후 저녁 영업을 위해 서둘러 본인들의 점포로 향한다. "영업만으로도 바쁘신데 교육에 와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에 상인분들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교육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주민역량강화 교육 <친절 및 상품 전시> 구성

PART 1	브랜딩이란 내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해시태그의 이용 목적
PART 2	이미지 메이킹이란 이미지 메이킹과 마케팅의 관계 우리 점포에 맞는 나의 이미지 메이킹
PART 3	나의 브랜드로 C.S.하라 고객만족이 아닌 고객감동 말로 전하는 마음의 전달력의 위력
PART 4	D.P.의 올바른 이해 우리 점포에 맞는 D.P. 이해하기
PART 5	우리 점포에 맞는 D.P. 실습(1) 우리 점포에 맞는 D.P. 피드백(1)
PART 6	우리 점포에 맞는 D.P. 실습(2) 우리 점포에 맞는 D.P. 피드백(2)

친절 및 상품 전시 교육은 브랜딩과 내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이미지 메이킹, 고객감동과 올바른 진열 전시 등 조운동 상인들의 생활 가까이에 있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배우고, 실습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쳤다. '매일 반복되는 일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내 가게의 변화와 손님응대에 대하여 실무적인 배움이었다', '가게 운영에 개선이 되는 도움이었다'는 후기도 있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여러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된다.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하드웨어 사업에 투입되며 주민역량강화교육, 주민공모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운동 권역 상인들과 같이 지역 주민, 상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동력이자 필수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학교 앞 주민 카페와 초등학생을 위한 조그마한 책방

근화소양 주민쉼터 활용

근화소양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었던 공·폐가 활용 사업을 통해 소양로 2가 179-28에 2층 건물의 주민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공간 조성의 기획을 위해 수많은 회의를 진행했고, 1층에는 근화소양 신중년분이 운영하실 카페와 뜨거운 해와 바람을 피할 아이들의 쉼터 2층 어린이 휴게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관 주도의 시설물이 아니라 온전히 주민분들이 원하고 그리던 공간입니다. 단순한 수익구조를 위한 사업체가 아닌 근화소양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재생구역 핵심리더인 50+세대는 근화소양 주민쉼터를 거점으로 삶의 지혜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익히셨던 상생의 의미를 지역에 환원하고 인생 2막, 도시재생사업의 후반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동안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소근소근 마을(근화19, 20, 소양5통)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마을 경관을 꾸미고, 주민쉼터 공간에 의자, 테이블, 수납공간을 직접 만들어 보았고, 21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활동 기간으로 신청해주신 주민공모사업 '안전한 녹색마을 가꾸기 주민카페, 근화소양(주민협의체 박계화 위원(소양5통장))'을 통해 8회의 바리스타 교육, 카페 메뉴 교육을 통해 카페 운영에 관한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보셨습니다. 마지막 수업 21년 3월 18일,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커피와 빵을 나누는 행사도 진행하면서 마을 내 소통 공간이 마련됨을 알렸습니다.







근화초등학교 어머니회와 본 공간에 관심을 가지는 춘천 시민분들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신 어르신, 어머니, 초등학생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근화초등학교 어머니회장 김보경님)', 서각 관련 재능기부와 주민쉼터 꾸미기를 진행해주신 '근화소양 쉼터 2층 아이들 공간 조성(오홍택님)'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2건을 쉼터 2층에서 진행하면서 사업기간 동안 배너를 비치하는 등 홍보기간을 두었고, 마을 주민 외에 근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소개도 하고 알리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화소양 도시재생사업의 마지막 연차인 21년도에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성에 대한 욕구와 그에 걸맞은 움직임에 따라 마을관리 협동조합 관련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도시재생. 시작과 종료는 있어도 도시재생의 끝은 없을 것입니다. 마을주민이 스스로 관리하고 주인이 되는 도시재생 춘천시민, 근화동 소양동 주민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근화소양의 발전은 계속됩니다.

글/사진 이범용 코디네이터

커뮤니티 아트 '약사의 땅'

'다시 봄' 전시회

커뮤니티 아트 '약사의 땅'은 약사명동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커뮤니티 아트로 표현하고 결과물을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체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에 적합하여 주민공모사업 기획 공모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일시정지 시네마는 목선혜 강사를 초빙하여 약사명동 주민 8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3주 동안 서양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유화를 그리고 싶다는 이들 요청에 따라 아크릴화 교육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분들은 모두 50~60대 어르신들이었는데 수업 시간 외에도 따로 시간을 할애하여 그림 연습을 하는 등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완성된 풍경화와 정물화 10여 점으로 터무니 창작소에서 지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다시, 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20일 판소리 오프닝 행사부터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우연히 동네를 지나 가던 주민 분들도 발길을 멈추고 판소리 공연을 함께 즐기셨습니다. 소리꾼이 선창하면 관객들이 후창하며 현장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작품에 대한 반응 역시 뜨거웠습니다. 화가로 데뷔한 어르신들은 지인들을 데려와 자랑할 정도로 뿌듯해 하셨고, 주민들은 그림을 보고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약사명동 주민들은 전시회에서 작품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평소에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누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렇듯 '다시, 봄' 전시회는 약사리 문화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봄을 맞이한 약사명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 김다인 코디네이터
사진 김다인 코디네이터, 터무니맹글

지역이 재생되다, 땅에 숨결을 불어넣다

쌈지 공원


BEFORE



AFTER

관리되지 않아 제멋대로 자란 풀과 나무,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로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해 주변 사람들의 코를 찌푸리게 만드는 악취, 비합성수지 폐기물들이 쌓여가던 곳. 그곳이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재생되어 새롭게 변화하였다.

현재 교동·소양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 생활 SOC 확충, 주거환경의 개선, 마을공동체 회복 3가지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거환경의 개선의 일환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자투리땅이 쌈지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쓰레기와 잡초들로 무성하던 곳이 깔끔하게 정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주민휴식 공간(소규모 편의시설)으로 탈바꿈되었다.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에 도시재생사업을 잘 모르시는 지역 주민들도 '우리 동네에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피부로 느끼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쌈지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교동·소양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생활 복지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도 주민들과 함께 웃음소리와 온정이 오가는 따뜻한 지역으로 재생되어가기를 기대해본다.

글/사진 이채은 코디네이터

올챙이국수 (Since 1977)

글 신요한 청년인턴
사진 신요한 청년인턴
세콰노의 머거머거(https://blog.naver.com/gypsyone)

지난 요선제면에 이어 새로운 노포를 찾던 중 육림고개의 40년 역사를 가진 올챙이 국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노포래퍼"라는 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 가게라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는 곳이었다.

육림고개를 알리는 입구 간판을 지나가면 파스텔톤의 잡화점을 시작으로 빈티지한 음식점과 과거의 향내를 풍기는 주막까지 있어 이곳이 육림고개라는 것을 간판 없이도 알 수 있었다. 고개를 넘어 끝자락에 다다르면 빨간 간판에 "올챙이 국수에 올챙이가 들었게, 안 들었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켜진 LED 조명을 보고 미닫이문을 열자 투명한 봉투에 국수를 담고 계시는 주인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상에 올려진 국수를 보며 올챙이 국수에 대해서 주인 할머니와 인터뷰를 나눠봤다.





올챙이 국수에 올챙이가 들었게, 안 들었게?

Q. 올챙이 국수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올챙이 국수의 시작은 40년 전 육림고개에서 생선장사를 하다 우연히 홍천에서 온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에요. 홍천 아주머니가 찜통에 가져온 것이 올챙이 국수였고 많은 사람이 줄을 서며 먹을 정도로 아주 좋아했어요. 또한, "옥수수 두 말 4천 원에 사서 국수 3만 원어치 판다."는 말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생선장사를 그만두고 올챙이 국수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홍천 아주머니에게 국밥 한 그릇 대접 못했지만 다시 만난다면 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네요.

Q. 올챙이 국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올챙이 국수의 이름의 유래로 40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올챙이 국수가 아닌 올챙이 묵으로 시작했어요. 국수를 작은 구멍이 뚫린 바가지에 똑똑 떨어트리며 뽑힌 모양이 올챙이 모양이라 올챙이 묵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길게 뽑는 도구와 기술이 있어 올챙이 묵에서 올챙이 국수가 되었어요. 가끔 올챙이 몇 마리 들었냐고 묻는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못 하기에 진짜 올챙이는 없다고 하고 노인분들이 오면 일반은 올챙이 10마리 곱빼기는 15마리 들었다고 농담하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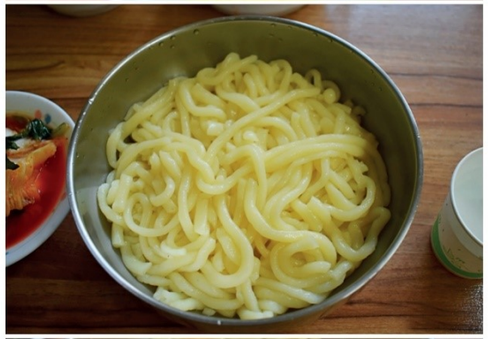
Q. 올챙이 국수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올챙이 국수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홍천 아주머니에게 말로만 배웠던지라 기술이 부족해 많은 국수를 버리기도 하고 하루에 7천 원밖에 못 팔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국수 한 그릇의 가격이 300원이라 생각보다 돈이 되지 않았고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 운영이 어려웠죠.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300원에서 500원, 700원, 1,000원 그리고 지금의 4,500원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현재는 허리가 좋지 않아 음식점 내에서 음식 제공의 어려움이 있어 포장 위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4월부터는 아들의 도움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Q. 청년몰이 생기게 된 전후의 육림고개는 어떠한 점이 달라졌나요?

원래 육림고개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리도 깨끗해지고 건물도 깔끔해지더니 주말에는 젊은 남녀가 넘쳐나요. 젊은 아이들이 간판의 "올챙이 국수 올챙이 들었게, 안들었게?"라는 문구를 보고 호기심에 방문하여 사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에요. 그래서 또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진행하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올챙이 국수 주인과의 인터뷰를 마치게 되었다. 국수를 가게에서 직접 맛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주인 할머니의 건강상 문제로 포장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포장 받아온 올챙이 국수의 구성은 올챙이 면과 참깨를 넣은 안 매운 간장소스, 매운 간장소스 그리고 김치로 구성되어 있다. 주인 할머니께서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뜨거운 물을 봉투에 넣어서 몇 번 흔들고 간장소스와 면을 함께 섞었다. 먼저 소스만 숟가락으로 떠먹었는데 조금 짜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올챙이 면과 함께 먹어보니 짠맛이 중화되어 오히려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다. 먹을수록 간장소스와 담백한 면의 조화가 좋았고 금세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었다.

방문기를 마치며 나는 도시재생을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통해 나오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40년의 과거를 가진 올챙이 국수의 맛을 현재의 젊은 남녀에게까지 전달하여 과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도시재생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를 찾는다면 도시재생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 19가 잠잠해지고 날이 따뜻해지면 올챙이 국수 한 그릇 어떨까?

PLACE

도심 속, 마을 역사가 살아 숨쉬다

춘천 향교
春川 鄕校

교동(校洞)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을까?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학교가 있는 마을, 오늘날의 중·고등학교의 역할을 담당하는 춘천 향교가 위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교골' 또는 '교동'으로 불렸다.

옛날부터 향교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제사의 역할을 담당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제사의 기능만 남아있지만, 과거 많은 미래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춘천 향교는 한국전쟁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소실되기도 하였지만, 중건과 보수의 과정을 거치며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상황에도 명맥을 이어오며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춘천 향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8호로도 지정되어 있다. 그만큼 춘천 향교는 문화재로서도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춘천 향교에 춘천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잘 찾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를 위해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향교 문화체험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조금씩 비대면, 대면 행사를 통해 전통 문화체험, 고전 문화 등 예절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민, 관광객들과 함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공간으로서 향교가 재생된다. 더불어 향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춘천 향교와 춘천문화원, 한림대학교가 협약을 맺었다고 하니 춘천 향교가 현대 시민들의 삶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대해본다.

글 이채은 코디네이터 사진 교동소양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EVENT



2021년도 번개시장의 도약

번개시장 상인역량강화 교육

근화소양 도시재생 사업구역에는 전통 60년의 전통시장 번개시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서면 주민들이 소양로 배터에서 처음 좌판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던 번개시장은 70년대 군부대와 정미소 사장의 협조로 공터를 이용하면서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80년대 초반 인근 연탄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그 자리에 더 많은 상인이 모여 시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서면의 농산물을 아침에 배로 싣고 나와 팔아 자녀의 학업을 뒷바라지 했고, 여기서 우수한 지역인재가 많이 나와 '박사시장'이라 불렸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장이 서고 반나절이면 매매가 끝난다고 하여 '번개시장'이라는 명칭도 가지게 됩니다.

유통구조의 변화와 신시가지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이동하면서 1990년 이후 침체기가 시작되며 쇠퇴하였으나 2015년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선정 2016년 근화소양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2016년 7월 춘천 지자체 사업인 소양강스카이워크 개장식과 더불어 단발 야시장이 폭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야시장 임시추진위원회에서 매주 토요일 개장하기로 합의합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3월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열리는 명실공히 춘천 제일의 야시장으로 거듭납니다.

근화소양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과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번개야시장의 위상에 맞는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번개시장 상인회의 숙원 사업인 주차장, 상인회 사무실 그리고 공동 조리장 완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번개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조리장을 활용하고 시설관리 교육, 음식 메뉴를 개발하여 도시재생 사업종료 이후에도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전문 셰프 강사를 초빙하여 이동식 매대 운영자 및 운영 예정자들과 함께 야시장의 변화를 진행합니다. 2021년 4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화할 번개야시장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번개시장의 발전은 계속됩니다.

글/사진 이범용 코디네이터

2021년 선발된 '마을활동가' 6인을 소개합니다!

★ 마을활동가의 역할
하나, 주민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연결로 역할
둘,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셋, 주민 및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넷, 그 밖에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난 2월 19일 마을활동가 6인을 위촉하고,
마을활동가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촉된 마을활동가들은 활동기간 동안 춘천시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도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가까이에서 도울 것입니다.
2021년 마을활동가로 선발된 6인을 소개합니다.



근화소양동 마을활동가 홍석운



Q. 마을활동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근화소양 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고령층의 주민분들이 많아서 프로그램 시작 전 미리 전화를 드리고, 프로그램 진행 시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고,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 마을활동가로서 근화소양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 되었으면 하시나요?
춘천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근화소양 지역이 옛길·맛길·물길이 어우러진 소양 문화 마을로 자리매김하여 춘천 도시재생사업의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메모리얼 존',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근화소양쉼터', 마을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도서관', 번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번개시장 주차장'시설이 생깁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마을활동가와 주민이 서로 협의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재생 웹진&매거진의 홍보가 도시재생 사업지 주민들에게도 알려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호응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화소양동 마을활동가 김보경



Q. 마을활동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주민분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분들에게 맞는 강의나 맞춤 수업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하고 싶은 말씀들은 많지만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아서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도 근화·소양동 주민이라서 그런지 더욱 우리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더 살펴보게 되고 마을 주민분들께도 한 마디 더 걸게 됩니다.
마을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우리 마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Q. 마을 주민이자 마을활동가로서 마을 주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현재 마을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마을에 관심이 많으시고 애착이 강하셔서 마을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에서 더욱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마을의 주인이 될 아이들에 대한 공존과 상생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근화소양 주민쉼터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여러 수업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마을 주민이 이렇게 같이하는 행사가 많아진다면 끼인 세대라고 하는 말하는 신중년들도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우리 마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더 살기 좋고 사이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Q. 조운동에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를 희망하시나요?
조운동과 그 일대는 과거 춘천 도심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완료와 퇴계동의
투탑시티 같은 신도심의 부상으로 세대교체가 일어나며
자연스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는
오랜 시간 쌓인 역사와 문화가 있고 이를 일궈낸
주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예전처럼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 및 추진할 수 있는
자치적 공동체를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Q. 마을활동가로서 주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마을활동가로 선정되어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다보니 금방 적응이 되어 더 빨리 많은 주민
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을 활동가로서 활동을
시작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다가오는 코로나 종식과 우리 마을의 부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마을 활동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춘천에 살기 시작한 시기가 아마
2005년 쯤이었을겁니다. 학생 시절 부모님께서
박사마을 근처에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경영하셨는데
휴일엔 신매대교를 건너 자전거 타고 명동 근처로 와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명동이 놀기엔 가장
좋았거든요. 한적한 춘천에서 사람이 북적북적했던 곳은
명동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
돌아온 명동을 보며 처음 느낀 감정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쇠락해가는 거리를 보며 일개 시민의
선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을 활동가라는 직책을 알게 되었고
이 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조운동 일대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놀이터가
되어주었던 마음의 빚도 있구요(웃음)

Q. 마을활동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마을 구성원들간의 윤활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SNS도 좋고 화상통화도 좋지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역시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마을 단위의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산으로 가는 것은 소통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간 오해가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마을행정을 돕겠습니다.



Q. 마을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도와 주민들께
집수리 지원 사업을 설명드렸는데 주민들께서 실제로
집수리 지원 사업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도움이 된 것 같아 무척 뿌듯했어요.

Q. 활동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시재생사업 자체에 무관심한
주민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도시재생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Q. 마을활동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민과 주민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윤활유와 같은
다리 역할이라 생각해요. 주민들끼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요.

Q.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을활동가로 일하면서 주민들을 만나 저녁도 먹고
편하게 이야기 할 기회가 많았어요.
소소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조용하던 마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다시
시끌벅적해졌는데 제가 어릴 적 흔히 보던
동네 모습으로 변한 것 같아 보기도 좋고 정겨워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기고 이경은 코디네이터
인터뷰 홍석운, 김보경, 김명숙, 김현정, 김기연, 강지송

약사리 문화마을 마을공유 공간

마을 공유 부엌 & 어린이 작업실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사리 마을 공유공간 만들기'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사리 문화마을 내 주민 이용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마을공유부엌'(가칭: 약사리 공유주방)과 '어린이 작업실'(가칭: 약사리 어린이 창작놀이터)이 설계 중입니다.

'마을공유부엌'은 학생과 학부모, 청장년층,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는 공동 주방입니다. 이곳은 약사명동 주민들의 교류·소통 공간, 전시·체험 공간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6억 원이 투입될 '마을공유부엌'은 지상 2층 연면적 160m²로, 위치는 약사동 하늘닭갈비 인근 공원 부지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어울리는 '마을공유부엌'은 약사리 문화마을 공동체에 한층 더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어린이 작업실'은 아이들이 다양한 재료, 도구를 만져 보고, 만들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 보는 창작 놀이 공간입니다. 이외에도 주민들 상황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3.5억 원의 지상 1층 연면적 약 50m²로 계획된 '어린이 작업실'은 봉의초등학교 후문 유휴 부지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 작업실'은 약사리 문화마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학부모, 어르신들까지 한데 모여 어우러져 노는 재밌는 교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공유부엌', '어린이 작업실'과 같은 다양한 세대의 수요에 맞는 마을 커뮤니티 공유 공간이 약사리 문화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사진 김다인 코디네이터



춘천 지하도상가의 새로운 변화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조성사업

춘천 지하도상가가 개장하고 강산이 두 번 변할 세월이 흘렀습니다. 개장 당시 강원도 내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춘천 지하도상가는 그 기대에 맞게 많은 춘천 시민들의 쇼핑 장소이자 눈·비 또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 장소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하도상가는 또 한 번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춘천 지하도상가는 19년 하반기 선정되어 20년부터 추진 중인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 타이틀에 맞는 문화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1년 2월 리모델링 착공에 들어간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조성사업이 그 시작입니다. 20여 년의 시간 춘천의 상업 일번지로 역할을 해온 지하도상가는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가 들어서며 문화 중심지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올 5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실로 있는 42개 점포에 여러 분야의 예술인, 예술단체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 입점하여 지하도상가를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체험 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술인들과 청소년들의 활동 장소로 기능하게 됩니다.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조성사업은 조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드웨어 사업 중 처음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조성될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와 춘천시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의 시너지로 춘천 지하도상가가 춘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이에 많은 사람이 지하도상가로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사진 김태홍 코디네이터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자율주택정비사업

Ⅰ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2인 이상)을 구성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스스로 노후 저층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Ⅱ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장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노후주택이 신축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도시재생이 가능해집니다. 사업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자도 적어 간소한 사업절차로 주택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Ⅲ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농어촌 및 준 농어촌은 대상지역조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거나 기존주택의 수가 단독주택은 10호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이여야 합니다.

Ⅳ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방식

사업방식은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합필형, 구획정리만 하고,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필지를 합하지 않고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건축협정형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신축 연면적 또는 신축 세대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몇 가지 특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의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도 살리고 신규 주택도 늘리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헌집 주고 저렴하게 새집 받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콜센터 : 1644-2828 홈페이지 : www.reb.or.kr

글 도윤정 코디네이터 사진 한국부동산원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ㅊㅊ(치읓치읓)' 3호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ㅊㅊ(치읓치읓)'은
춘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분들의 활동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 공간입니다.

우리 매거진은 PC 또는 모바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 웹진
› 웹진<치읓치읓> 3호
https://uris.chuncheon.go.kr/webzine/3/index.html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더 많은 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홈페이지<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uris.chuncheon.go.kr
› 블로그<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c_crsc
› 유튜브<춘천도시재생>
https://www.youtube.com/channel/UCdg0FbJGB_AKPTkhPhjg3Bg

약사리마을 소통공간
› 카페<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cafe.naver.com/munhwavillage

교동소양동 소통공간
› 페이스북<교동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Gyo2019

조운동네 소통공간
› 인스타그램 <조운동네>
https://www.instagram.com/joundongne
› 유튜브<조운동네>
https://www.youtube.com/channel/UC_haKq39kpwy6FDLgW97YtA
› 페이스북<조운동네>
https://www.facebook.com/joundongne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